

“협치 없인 아무일도 못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하라”

오늘 개원
20대 국회에 바란다

취업난·구조조정·사회 양극화 해소부터 쟁겨야 車 100만대 도시 등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주문

제20대 국회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30일 문을 연다. 많은 지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기대하며 새로운 국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보다는 '협치'를 통한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과 구조조정,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등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해묵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먹거리 창출, 호남 주도의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도 하다. <정쟁'벗어난 '일하는 국회'로=우선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1개 법안당 평균 처리 기간은 517일(3월 24일 기준)이나 됐다. 또 지난 4년간 무려 1만8000여 건의 법안과 결

의안 등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 법안을 포함해 약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비생산적 국회는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년 만의 '여소야대' 지형은 20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어느 정당도 혼자 힘으로는 과반을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절묘한 3당 구조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중요해졌다.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진 여권은 조금 더 야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을 발목잡으며 대립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라는 게 이번 총선의 3당간 '황금분할 구도'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이뤄내야 한다는 첫 번째 과제가 꼽히고 있다. <민생경제 우선=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생'이란 표현으로 집약되고 있다. 20대 국회는 시기적으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경제인들의 요구와 격차해소를 통한 공동체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해법을 찾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한지 오래이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의 합의와 실천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른바 19대 국회에서의 '증세와 복지' 논쟁에서 드러났듯,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20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 발전과 호남 주도 정권교체=제 20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

원들은 호남의 낙후를 해결하고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호남 주도 정권교체에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민심이다. 이를 위해 광주 미래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먹거리 창출과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광주공항 이전 및 무안 공항 활성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의 굵직한 지역현안 해결도 20대 지역 국회의원들의 몫이기도 하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안주에 급급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호남정치권이 주도하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최원길기자 cki@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29일 오후 나주시에서 전남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나주시 금성관 문화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화·이용주·황주홍·박지원 국회의원, 이낙연 전남지사, 이정현·이개호·손금주·윤영일 국회의원. <전남도제곡>

“전남도 현안 해결·국고 확보 초당적으로 힘 보태자”

이낙연 전남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30일 등원을 앞두고 29일 이낙연 전남지사의 초청으로 모인 전남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6시 나주시내 광양집으로 전남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가 제20대 국회의원들의 당선 축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흥여와 막걸리를 곁들여 나누곶담을 먹으며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황주홍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이용주 의원, 손금주 의원, 정인화 의원, 윤영일 의원 등과 윤시석, 정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은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 회복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체계적 인맥지도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전남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력하겠다”며 “산적한 전남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의원님 여러분과 전남도는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라는 지역민의 명령을 받았다”며, “저와 전남도는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의원 한분 한분을 성심껏 모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당선인들은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고용 안정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확충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광양만 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남해안철도 조기 건설 ▲연륙·연도교 조기 완성 등 지역 현안과 국고 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회법 따로 민생 따로... 野3당 '투트랙' 대응

국회법 20대 국회 재의결 합의... 민생·원구성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민생·경제 문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분리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를 추진하겠지만, 여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회를 멈추는 등 '초강수'는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생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7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3당은 민생경제나 원 구성 논의 등은 이번 거부권 공방과 별도로 대응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호하다”며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개인 눈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민생경제보다 더 큰 정치는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리대응 기조는 이 문제가 청와대와 야당 간의 정쟁으로 번진다면 야당으로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을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까지 '19대 회기 내 처리가 안 되면 자동폐기'라는 해

석을 내놓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장, 야권 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추진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같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문회 절차 보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상임위 청문회가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권과 상관없이 청문회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일각에서는 재의결 추진이 무산될 경우 이후 대응에서 야당 간 대응에 온도차가 생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률안 재의 요구...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수단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가의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다. 거부권을 통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을 제지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현행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일례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지난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의요구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 뒤 19대 국회 임기 만료인 오는 29일까지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밝은광주안과 의원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짝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 소아/안 라식/안색/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분야

- 민사/가사/행정 소송
- 형사소송/수사 대응
- 기업법률자문/기업회생·파산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 행정심판/조세심판/소청심사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로 권오성** 올림

주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 전화 062)236-4000
순천분사무소 ▶ 전남 순천시 황지로 30, 거형빌딩 202호 · 전화 061)727-7099 · 팩스 061)721-4552

구성원 변호사

조재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법 부장판사

서정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문방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노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법 검사

권오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법 검사

소속 변호사

윤철호 (서울대 법학과, 사사45회)
박충배 (서울대 철학과, 변시 1회)
김경욱 (전남대 법학과, 변시 1회)
민양이 (경희대 정외과, 변시 3회)
정은혜 (연세대 법학과, 변시 3회)
류노엘 (조선대 법학과, 변시 4회)
정찬욱 (경향대, 변시 4회)